

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
	배포일자 2022년 3월 17일(목) 총 3매		
담당 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	담당자 • 구미국제기구팀장 김희연 ☎440-3241 • 담 당 자 김수정 ☎440-3242		
사진(이미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의 글로벌 도시외교...유럽도시들과 우수정책공유
- EU IURC/ICP-AGIR 프로젝트 등 참가 ... 도시재생, 스마트도시, 바이오 등 정책 공유 -
- 인천시 우수정책 알리고, 유럽도시들과의 도시외교 발판 -

인천시가 유럽연합(EU) 도시와의 정책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한다.

인천광역시는 유럽연합에서 수행하는 IURC*(도시재생 및 사회통합 운동) 프로젝트에 초청받아 시 도시재생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으며, ICP-AGIR**(국제도시파트너십-그린/포용적 회복을 위한 행동) 프로젝트에 참가해 베를린과 스마트도시, 도시재생, 바이오분야의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

* IURC : International Urban and Regional Cooperation (홈페이지: <https://www.iurc.eu/>)

** ICP-AGIR : International City Partnerships-Acting for Green and Inclusive Recovery (홈페이지: <http://icp-agir.eu/>)

IURC 프로젝트는 “생태적 전환, 도시재생, 탄소중립”을 주제로 유럽연합도시와 비유럽연합도시 등 총 68개 도시가 교류하는 프로젝트다.

이 프로젝트의 “도시재생과 사회통합(Urban Renewal and Social Cohesion)”을 주제로 하는 웨비나(웹+세미나)에 인천시가 초청받았으며, 구혜림 시 재생정책과장이 오는 17일 18부두 내항 재개발, 상상플랫폼, 세관창고 사례 등 인천시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.

ICP-AGIR 프로젝트는 “순환경제, 에너지 전환, 대기질” 등을 주제로 유럽연합도시와 비유럽연합도시와의 교류 증진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로, 총 28개 도시가 참가하고 있다.

이 프로젝트에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시와 광주시가 유일하게 선정됐으며, 인천시는 베를린과 스마트시티, 도시재생, 바이오 등 3개 분야에서 협업할 예정이다. 광주시는 대기질 관련 분야에서 아테네와 협업한다.

지난 2월 10일 시는 베를린과 킥오프 회의를 통해 스마트도시, 도시재생, 바이오산업 등 분야에 대해 서로의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기로 했다.

한편, 3월 31일 영상회의를 통해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청(스마트시티과)에서 송도 스마트도시에 대해 소개하고, 베를린에서는 지멘스슈타트 주택단지, 오이레프 캠퍼스 등 스마트도시를 소개할 예정이다.

나기운 시 국제협력담당관은 “전 세계가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는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, 우리 시는 국제기구 시티넷, 유럽연합 등을 통해 다양한 도시 간 교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”며 “글로벌 도시로써 인천시의 우수정책과 기술들을 세계 지방정부와

공유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선도하는 도시 외교에 힘쓰겠다” 고 말했다.